

지역경제 숨통 트인다

군산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위기극복 특별교부세 65억 확보

군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교부세 6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행정안전부 및 김관영 국회의원과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으로는 ▲산단 노후기반 시설 정비(25억 원) ▲산단 주변 상가 활성화

사업(10억 원),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조성사업(10억 원) ▲장지도항 개발사업(10억 원) ▲재난대응사업(10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산단 노후기반 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된 산단의 도로와 하수도, 가로등 및 인도 정비를 통해 군산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들은 물론 추가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인 동시에 지역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단 주변 상가 활성화 사업 예산 확보로 지역 산업경제 및 상권 붕괴를 막고 산단 내 상가 활성

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조성사업, 장지도항 개발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 말 고군산연결도로 완전 개통으로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위기에 빠져있는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은 8일 오전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호남의 민의와 이익을 대변할 민주평화당"에 입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위해서는 행정과 함께 협력해야”

정현을 익산시장 민주평화당 입당 선언

정현을 익산시장은 “호남의 민의와 이익을 대변할 민주평화당”에 입당을 선언한다”고 8일 오전 9시 30분경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밝혔다.

정 시장은 “그 동안 저는 익산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시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당적 또한 개인의 이해득실이 아닌 시민의 뜻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고자 고심을 거듭해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정 시장은 “지역의 원로 인사와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두루 만나면서 고견을 새겨들었고, 과연 어떠한 결정이 우리 익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길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민주평화당”은 민생속으로라는 기치아래 개별정책을 통한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의 한반도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적 완성 등 MI정신을 계승하고 있고, 또 민주진영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 노선과 정책을 통해서 익산시민의 뜻과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 시장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확장, 역사문화 관광도시 기반구축 등 지역의 중대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정치권의 더욱 단단한 공조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익산시는 올해 사상최대

국가예산 확보로 재정규모 1조원시대를 열었고, 지난 2년간 일탈한 살림운영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지방채 중 절반 가까이 상환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기업유치도 50%대를 넘어사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현을 시장은 “오늘 저는 입당의 변을 밝히며, 30만 익산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전 세대가 피와 땀으로 지키고 일구는 내고장 익산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30여년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역량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시정에 쏟아 붓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이화숙 군산관광두레 PD 군산 제2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관광비즈니스를 기획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사업단 이화숙 군산관광두레 PD가 전라북도의회 군산 제2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이PD는 오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초촌동 군산교육문화회관 영상관에서 그의 저서 '오리저널 군산' 출판기념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PD는 관광두레PD, 지역언론사기자, 후마니타스폴리스를 꿈꾸던 군산문화발전소 디렉터로서 일한 경험과 관점 그리고 취재기록을 한 곳에 모아 '오리저널 군산' 출판하였으며 북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저서에 담긴 군산관광산업, 도시재생, 주민주도 관광비즈니스, 비람직한 청년문화및 창업 등에 관한 토크쇼를 할 예정이다.

이PD는 “지역 대기업 제조업의 몰락과 반대로 최근 군산관광은 연40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성장하였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동력은 그 패러다임을 잘 아는 세인재상이 필요하다.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와도 당일치기로 끝나버리면 주민에게는 주차장이용 불편과 쓰레기만 남기 때문이다. 관광이 주민들의 경제로 직접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김영배 전 전북도의원, 익산시장 출마 선언

“사회안전망 강화 따뜻한 복지 실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전 전북도의회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영배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8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두 번의 시의원과 두 번의 도의원 경험, 회사를 운영했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해 중요로 위치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해 시장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이뤄내겠다”면서 “지난 16년간 쌓아온 정치력과 인맥이전 시행착오 없이 시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익산이 가진 지역으로 일자리



2만개를 만들어서 떠나지 않는 익산, 돌아오는 익산으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연계한 식품산업·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생명산업 수도를 만들겠다”며 “백제역사 문화유산과 다양한 관광자원, 전통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카이스트와 협력해 인공지능기반 의료융합산업 연구기관을 유치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익산의 미래를 반드시 바꾸어 가겠다”면서 “익산의 위기를 기회로, 우리 한 번 해보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올해부터 무상급식 전면 실시

익산시(정현을 익산시장)가 올해부터 시내권 고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19개 고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시내권 고등학생 7,700여 명의 학부모가 1인당 연간 31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이번 전면 무상급식은 익산시가 주도하고, 이후 전주, 군산지역의 도시고교까지 확대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2006년 농촌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시내권 고등학교를 제외한 농촌지역 9개교와 초중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해왔다. 올해 처음으로 지금까지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던 시내권 고등학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로써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무상

급식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정현을 익산시장이 시민단체 주관 하에 열린 '익산 도시지역 고교 의무급식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를 통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의사를 밝힌 것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 결과, 전북도의 도시고교 지원 확대를 이끌어 냈으며 올해 관내 158개교의 3만 2천여 명의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12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전북 최초로 운영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며 도내 학교급식 지원 정책을 선도해왔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우수 일자리 사업 홍보 나선다

일산 킨텍스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참가

군산시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참가해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각종 일자리 정책과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지방정부간 일

자리 사업 공유·확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출신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 추진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일자리 사업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